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金價引上과 今後의 産金界

一

日本銀行金買入價格을 突然 一匁四十一錢의 大幅引上을 斷行하야 從前의 一匁三圓九錢을 三圓五十錢으로 決定하야 此를 五月六日부터 實施할 旨를 發表하엿다。前買入價格 三圓九錢은 昨年 即 昭和十年一月十一日에 改訂實施된 것으로서 그當時의 大藏省聲明中에는 『今後도 國際金時勢가 暴騰하면 그때마다 決定할 터이다。』라고 言明햇고, 또 그後 一年有餘의 期間內에 (一)倫敦金塊는 騰貴하고 (二)換算基準인 日英爲替는 多少 低落하야 金價引上의 客觀的材料가 具備되엇는데도 不拘하고 前藏相 故高橋氏는 그獨自的立場으로서의 財政政策 全體로 보아 金價引上의 必要를 느끼지 아니하엿스므로 此를 오래동안 放置해두엇든것이다。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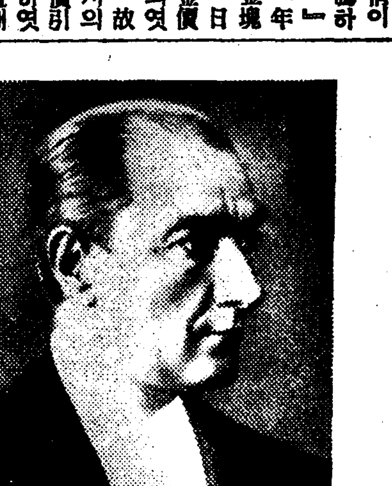
그러나 金의 國際價格의 標準이 되는 倫敦金塊가 騰貴될만 아니라, 金價換算의 基準이 되는 日英爲替가 低落되엿다는 客觀的事實은 金의 國內價格과 國際價格과의 乖離를 더욱 激成케하야 그結果로 金의 密輸出이 盛行되고 且漸甚히 行하게 되어온것이다。故로 今番의 金買入價格의 改訂을 말하면 그方法에 잇서서는 從來의 計算基準인 마ー진二割主義를 一割主義로 改訂한것인 同時에 그目的에 잇서서는 單純한 金의 密輸出防止策, 此를 換言하면 金의 國內保有策을 意味하는것이다。單純한 國內保有策이라는것은 今番引上의 目的가운데는 産金獎勵策의 意味가 包含되지 안핫다는 뜻을 말하는것이다。勿論, 價格의 騰貴는 間接으로 斯業의 發展을 促進하는 것이나 (一)今番引上은 民間市賣價格을 公式化한데 不過한것이며, (二)또한 他方, 産金稅 가튼것을 新設할 氣味가 보이는것을 보면 今番引上에 産金獎勵策이 包含되지안핫것만은 大槪 疑心업는일이다。

三

따라서 今番引上으로 因하야 産金界에 非常한 活氣가 再演出될것을 豫想하면 그것은 잘못일것이다。도리여 反對로 金銀商가튼것은 莫大한 打擊을 바들것이다。特히 朝鮮産金界로말하면 (一)百萬圓二百萬圓價値의 金鑛이 잇다고 잡고도 그것이 技術不足, 資本缺乏의 朝鮮人의 手中에 잇서서 가지고는 別道理가 업다는것이 널리 알리워 젓다。(二)朝鮮의 金鑛買賣는 政黨政治時代에 잇서서의 黨費調達과 密接한關係를 가지엇섯는데 只今은 政黨沒落時代에 屬한다。(三)朝鮮金鑛景氣가 그頂에 達햇다고 할 二三年前까지는 日本內의 資本家가 對滿投資의 安全性을 아직도 疑心하든 時代에 屬햇스나 只今은 滿洲의 安全性을 밋게 된 傾向이 잇다。(四)道理로 하면 經濟封鎖가 行하기쉬운 今日에 와서는 一旦有事時에 金을 가지고 軍需品을 外國으로부터 購入할 希望 [illegible]

다다넬스再武裝을 全會一致로承認

土耳其政府의要請에對하야 발칸協商國理事會


土國大統領케말파샤氏

【벨그라드 五日發同盟】 발칸協商國理事會는 五日午前午後에亘하야 유고슬라비아外務省에서 續開하고 다다넬스海峽, 에ー게海島嶼再武裝問題, 발칸協商國中心으로한 別個의國際聯盟結成問題等에關하야 協議를 遂한結果, 土耳其政府의 다다넬스海峽再武裝에關한 要請을 全會一致承認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六日도 繼續 開會될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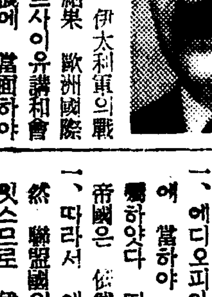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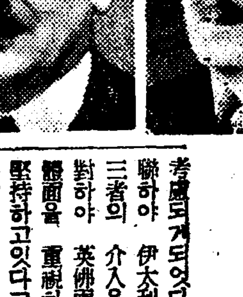
「現實的」政策으로 英、對伊商議提議

伊太利軍의「에」國首都入城으로 英佛伊間外交戰展開

【倫敦六日發同盟】 伊太利遠征軍의 아디스아베바入城에 依하야 黑人帝國의 討征工作을 完了한 結果 前後半歲에 亘한 軍事行動은 玆에 一段落을 보게되야 英、佛、伊三國間에 活氣잇는 外交戰이 展開되기로 되엿다。英國政府는 에디오피아皇帝의 國外退去以來 數次에 亘하야 緊急閣議를 開催하고 來聯盟理事會에 對處할 方針에 關하야 愼重協議를 遂하엿다 即 伊太利軍이 完全히 所期의 目的을 貫徹한以上 英國政府도 『聯盟諸工作』을 固執하야 부즈럽시 情勢의 [illegible] 惡化를 招來하기보다는 오히려 『現實的』政策으로 伊太利政府와 直接交涉을 開始하기로 決定하고 英國政府는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在歐州諸問題에 關한 商議를 提議하엿다 [illegible] 그結果 外相 이든氏는 이미 四日伊太利外務省에 스빅치次官을 訪問하고 英國政府에서도 『現實的』政策에 基하야 [illegible]

聯盟體面維持上 「에」國은依然存續

聯盟一員인「에」國地位保障이 英佛兩國政府의方針

【倫敦六日發同盟】 伊太利軍의 戰時工作이 完了한結果 歐洲國際政局은 바로 베르사이유講和會議以來의 一大轉機에 當面하야 國際聯盟의 改組案은 眞摯하게 考慮되게되엿다 戰後處理에 關聯하야 伊太利政府가 끗까지 第三者의 介入을 排擊하고잇는데 對하야 英佛兩國政府는 聯盟의 體面을 重視하고 左의 方針을 堅持하고잇다고 解釋된다

一、에디오피아皇帝의 國內退去에 當하야 大權을 內閣에 委囑하얏다 따라서 에디오피아帝國은 依然히 存續한다

一、따라서 에디오피아帝國은 依然 聯盟國의 地位를 가지고 잇스므로 伊太利政府도 이法理를 無視할수는업다 講和交涉은 聯盟의 機構內에 遂行되지안흐면 안된다 [illegible]

(寫眞은 이든氏와 플랑당氏)

에皇帝亡命地는 瑞西國베ー베?

【알렉산드리아五日發同盟】 亡命의 元首하일레·세라시에一世의 亡命地는 瑞西의 베ー베市를 隱棲地로 選하리라고 [illegible]

伊의傀儡國建設 米國不承認方針

【華盛頓五日發同盟】 伊太利軍이 아디스아베바를 征服하엿다는 報道를 接하고 米國國務省當局은 何等 批判을 加치안코 아디스아베바 駐箚公使 반에가르氏가 今後如何한 地位에 서게될가에 對하여도 一切言明을 避하고잇스나 伊太利政府가 占領한 地帶에 所謂傀儡國을 建設할 境遇에는 스팀손 前國務長官의不承認主義에 基하야 어데까지든지 其成果를 承認치안흘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馬場藏相財政演說

【東京電話同盟】 六日 衆議院에서한 馬場藏相의 財政演說은 如左하다

昭和十一年度豫算은 衆議院解散에依하야 不成立이 되엇스므로 憲法의 條章에 基하야 前年度豫算을 施行하기로되엇는데 內閣成立後 아직 日淺하야 今年度豫算에서 政府의 新政策을 具現하게되지 아니하엿스므로 大體에잇서서 前議會에 提出한 不成立豫算에 依하기로 하엿다 卽 그施行豫算의 經費에서 實行할수잇는 것은 이를 實行豫算에 計上하는同時에 不然한것은 이를 追加豫算에 計上하기로하엿다 追加豫算에 計上하기로하엿다 [illegible]

歲入歲出이 모다 二十三億三百卅餘萬圓으로 [illegible] 昭和十年度에 超過한 災害에 關한經費도 [illegible]

[illegible]

第一師團渡滿

【東京電話同盟六日午後四時陸軍省公表五月六日 第一師團의 一部는 如左히 出發 渡滿의 途에 오를터이다

第一師團司令部는 午前十一時四十二分 品川發

小泉部隊司令部牛島部隊主力은 午前九時三十四分 品川發

木谷部隊의 一部는 午後五時二十五分 澁谷發

矢野部隊의 一部는 午前七時〇五分 甲府發

矢野部隊의 主力은 午後十時三十分 甲府發

國家權力에依한 稅制中央集權化

都市、農村의富의偏在를是正 稅制改革의根本方針

【東京電話同盟】 六日의 衆議院本會議의 馬場藏相의 財政演說은 數字說明을 簡潔하게하야(馬場財政)의 原則을 明示하기에 努力하엿는데 特히 中樞가될 稅制整理問題에 關해서는 增稅가 緊要함을 力說하고 國民負擔의 不均衡을 打開하는 同時에 國及地方을 通하야 財源의 調整을 圖하는 것이 今後의 政府의 稅制整理의 根本方針이라고 演說에서 增稅의 必要와 中央地方을 通한 稅制整理의 必要를 强調하고 [illegible]

議會消息 貴族院本會議

【東京電話同盟】 貴族院本會議는 [illegible]

[illegible]

佛內閣總辭職? 三十一日議會閉會와同時

【巴里六日發同盟】 佛國政府는 五日夜半에 亘하야 緊急閣議를 開催하고 法貨防衛其他總選擧後의 新事態에 對處할 方針에 關하야 協議하엿는데 結局 아직 特別한 對策을 決定하지못하고 散會하엿다 散會後 베니에藏相은 記者團에게 對하야 如左히 言明하엿다

사로ー首相은 來三十一日 議會閉會와 同時에 總辭職을 決行할터이오 따라서 六月一日以降 一切의 責任은 新議會에 가지게될터이다 그에앞서 此際에 慌忙히 法防衛策을 講究할 方法은 업다고생각한다 (寫眞은 사로ー佛首相)

內審官制廢止

【東京電話同盟】 內閣審議會官制廢止의 件은 六日 官報에 勅令으로 公布되엿다

中樞院參議 太半이任期滿了 六月三日에發令

中樞院 參議는 來六月二日로서 太半이 任期滿了가 되므로 總督府에서는 後任參議를 銓衡中인데 近近 任命手續을 取하기로 되엇는바 現參議는 再選될 模樣으로 六月三日 一齊히 發令될터이다 그리고 缺員 二名에 對하여도 同時에 補充發令을 行하리라고 豫想된다

株式界俄然躍騰 金買價引上으로

政府積極政策에好感

【東京電話同盟】 低金利政策에依한 産金相場의 一段落으로 株式市場은 『玉』整理에 不活潑商狀을未免하던바 六日 東株立會는 金買上 大幅引上에 俄然人氣를 呈하야 産金株는 躍進大躍騰을 示하고 [illegible] 三菱鑛業等도 二、三圓躍進하엿슴으로 一般諸株도 人氣好轉되고잇다 新東도 短期寄付는 百三十二圓으로 一圓七十錢假騰上寄되고 後에三圓臺에 達하엿는데 增稅問題를 압두고 一般人氣는 아즉警戒濃厚하나 政府의 積極政策은 非常히 好感을 밧고잇다

植田司令官 關東州初巡視

【大連六日發電通】 關東軍司令官植田大將은 關東州를 처음巡視次로 六日午後一時半大連着、卽時 自動車로 旅順에向하엿다

人事·集會

▲小野礼氏(陸軍憲兵大尉)羅南憲兵分隊長轉任人事次來社

▲白大鎭氏(朝鮮賣藥株式會社廣告部長)新任人事次六日來社

▲崔亨根氏(南大門市場商人聯合會長)同副會長李英燮 事務理事金興悅 常務理事孫宗業三氏와함께 日前運動會完了人事次來社

夕刊後市況 六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七六八〇 (不變)
通新 一五三八〇 (不變)
日産 七二五〇 (不變)
東新 一三四一〇 (一〇低)

◆橫濱 生系 後引◆
當限 七四八〇〇 先限 七二八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三八〇 先限 六三二〇

[illegible]

大阪着名問屋案內

夏物運動服品揃 TSUKIGI SPORTING GOODS
卸 製造 裝服 發全
良品仕入은當店의信用

ツキギ運動用品本舖 大阪市北區老松町

人絹端切各種卸
津村合資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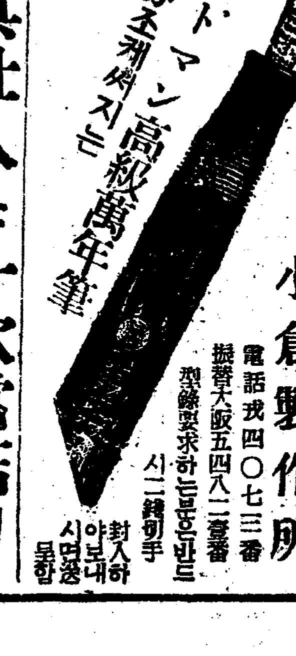
ナカ井オルガン

中井樂器店

全鮮에서 높흔名聲과함께 品質優良으로風靡하는ゼスター 萬年筆을都賣廉價提供
澤井商會製作所 大阪市北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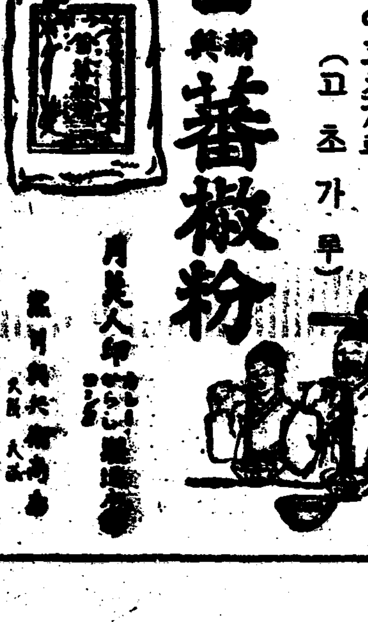
時計、貴金屬 寶石類、眼鏡、銀器 記念品

仲庭時計商店 大阪九条通

ハートマン高級萬年筆

小倉製作所 大阪市南區

玩具仕入은一次當店에
百般教育玩具卸問屋 新品在庫品豊富
角木商店 大阪市東區

食料紅 オブラード バター 製菓材料 藥實香料
西本商店 大阪市西區

밀국수·소바·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 고초가루
合 番椒粉


京阪神朝鮮人問題座談會 ⑥

朝鮮名産만 賣買하는 "코려안、데파드"도 妙案

神戶中心의 外人相對와 同胞에도 需應

對外進出도 非難事

[illegible] 상공업의정세 조선안과 외련락 금융기관의 필요등에대하야 林정업씨 께서말슴하여주시지요

林正業 상공업의 정세나 금융기관의 필요등은 딴전문가들에게 미루고 제가공업(工業)에 종사하는만큼 저의경험과안(案)을 말하려합니다 이곳에와서 보통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 사람으로서 기술을요하는 공장에 들어간 사람은 일본내지인보다도 훨신 숙히 훌륭한 기술을 배운사람이 만히잇습니다 조선에 제일급한것은 공업조선을 만들어내야되겟는데 기술자가부족합니다 이곳에서 엇더한 기관을만들어 가지고 견실한 청년을 모집하야 「세루로이드」공장이나 고무공장 초자(硝子)공장 그외중요한공장에 들여보내서 기술을 배우게하여 가지고 조선으로 기술자를한 사람이라도 속히만히 보내는 것이 급무이라고 봅니다 기관을조직하야 청년기술자를 양성하는데는 성의잇는 인물과 재정이 필요하니 해내해외에 잇는 인사들의만흔 원조가잇서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金支局長 조선특산물을 무엇을갓다가 엇더한방법으로 팔어야되겟다는 점에대하야 신호에 사시는 최시종씨가 말슴하시고 우리의 일상식료품은 우리손으로 엇더한 방식이라야 팔수잇슬지 이점에 대해서는 대판에게신 김경중씨 경도에 홍명용씨가 말슴해주십시요

崔時璋 장사에는 비밀이 잇는데 비밀을 다 말해서 되겟습니까

一同 대소

[illegible]・제가 평양(平壤)과 (대구、진남포、원산산물)을고지[illegible]가다 파는데 성위이 그러 낫우지는아니합니다 왕골로 만든 술과 핸드백등도수출하면 유망할듯합니다 그래고 마포(麻布)와 모시(苧布)를 [illegible]을 널도록 개량하면 신호에서라도 서양으로 만히 수출할수잇습니다 평양밤(平壤栗)이잘 팔리엿는데 지금에와서는 신용을 일허서 평양밤을 제치물이라고 하고서 팝니다 산지에서 속히지못하도록 수출할때에 엄중검사하여서 대외신용을 일치아니하도록하여야되겟스며 원산지에서 속전이곳으로대량수입만한다면 팔릴것입니다 서양사람이 신호에는만히오는데 관광단이올때는 한번에멧만원어치도 팔수잇는데 아직것우리물건을 선전하는거판이업습니다 신호에다가 「코리안데파트」를 하나만들어 노코 조선의 골동품과、갓、[illegible]、왕골제품、자물통등을 진열한다면 매우조흔선전을 낼줄 생각합니다 이곳에와잇는동포들이 명태를 만히사먹는데 북해도산은맛이업습니다 좀거더한 자본이잇다면 조선사람래 북대량으로무역하여서 갓다팔어도 조흘리라고봅니다 그리고 우리손으로만든김(海苔)도갓다팔면 되것입니다

(사진위는 동부유치원(東部幼稚園) 알에는 금궁유치원(今宮幼稚園)의아동들)

出席者 (無順) 京都側＝[illegible](耶蘇敎牧師) 鄭泰重(京都漢藥商組合理事) 高光模(同上館保育園長) 洪命用(海産物産商) 郭尙洙(自動車運轉手) 盧時一(고무職工) 金鏞石(朝鮮綿布商) 大阪側＝高重傳(耶蘇敎牧師) 文宗洙(耶蘇敎牧師) 李元道(基督靑年會理事長) 金俊玉(新聞記者) 林正業(製革工場主) 金澤銖(綢緞布木商) 朱寬淳(醫師) 申[illegible]熙(古物商) 鄭南局(古物商) 李曾術(民衆時報社員) 李景淑(網林幼稚園保姆) [illegible](家庭婦人) 金敬中(阪神消費組合長) 神戶側＝崔時璋(朝鮮物産商) 金[illegible]才(朝鮮人消費組合長) 李[illegible](藥種商) 崔[illegible](商團[illegible]) 鄭寬李(職工) 李民善(職工) 主催側＝本社編輯局長金[illegible]元、販賣部長方[illegible]斗、本社大阪支局長金光洙、支局員朴永善、京都支局長金[illegible]鎬、神戶支局長[illegible]東鎬 時日＝三月十四日午後二時 場所＝大阪川口 東海樓

日鑛"明罷事件의 主謀者에 三年役求刑

判決言渡는오는十三日에

【鎭南浦支局電話】작년칠월십일 진남포(鎭南浦)일본광업회사(日本鑛業會社)이천여명직공들의 대동맹파업사건 관계주모자 오상근(吳尙根)등 네명의 치안유지법위반(治維法違反)사건에대한 제칠회공판은 엿샛날 오후두시반부터 평양지방법원 진남포지청에서 열리엇는데 이날로써심리를 마치엿다。

그리고 립회했든 좌등(佐藤)검사가 사십분동안이나 길게론고를한다음 오상근에게 징역삼년 조인수(趙仁洙)、백긔수(白基洙)、김태성(金泰成)등 세명에게는 사년씩의 각각구형이 잇섯고 무료로 자진 변호하게되집 김덕준(金德俊)변호사로부터 이 사건은 파업당시 요구조건열두조목중에 제일중요한 항목인 임금인상과 대우차별등 세가지이니만치 모다 피고들의 정당한 요구이엇슨즉 오상근에게는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형을 써주고 그남어지피고들에게는 무죄를 주장한다는 장시간의 변론이잇슨후 판결언도는 도라오는 십삼일에 열기로결정하고 폐정되엿다

交通安全週間

十日부터一週日

교통도덕의 보급향상을 목표로 경기도경찰부에서는 오는십일부터 일주일동안 경성부내에서 교통안전주간(交通安全週間)을 실시하기로되엿다 첫날은경성일보사주최로 교통위령제(交通慰靈祭)와 우량운전수 표창식과자동차및 자전거 선전대등으로 선전할터이며 둘쨋날은 아동보호일(兒童保護日) 셋쨋날은 일제훈련일(一齊訓練日) 넷쨋날은 각종차의 등화검사일 닷샛날은 보행자지도일(步行者指導日)엿샛날은 통행구분도로 애호일 일헤째는 일제훈련일로 순서를 정하야 실시하기로되엿다한다

二科會展招聘

부산일보사에서는 일본미술단체인 이과회(二科會)를 조선에 초빙하야 오는 칠일부터 칠일동안은 경성상공장려관에서 이십사일부터 닷새동안은 부산상품장려관에서 전람회를개최할터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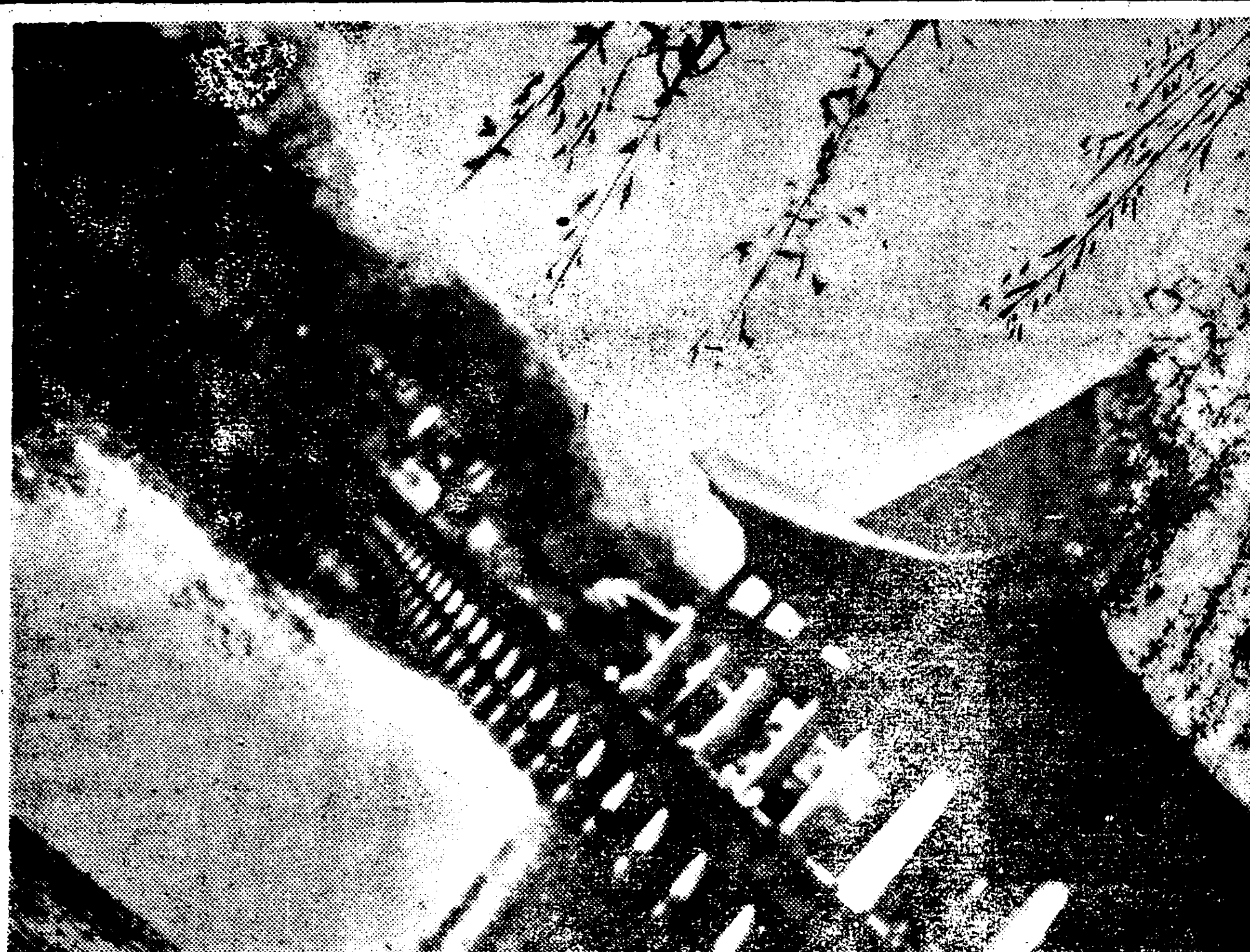
"事故의王"自動車

—會社거러慰藉料請求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은 위자료청구소송두건이 륙일경성지방법원에 제기되엿다 한건은 부내수송정(壽松町)이십팔번지의이호 유희국(兪熙國)과 유창식(兪昌植)두사람이 충남천안읍 경남철도주식회사(天安京南鐵道株式會社)대표자를 상대로 유희국은 이천사십이원이십팔전을 유창식은 이천구백오십칠원이십팔전을 위자료로 각기청구하는것으로 원고들은 작년구월십륙일 오후여섯시반 경남철도주식회사 소유승합자동차를타고 경남철도판교역(板橋驛)으로부터 부여군규암면규암리(扶餘郡窺岩面窺岩里)를 향하야 가든중 부여군구룡면논치시장(九龍面論峙市場)부근을지날때에 운전수 오명신(吳明臣)의 과실로 한길이상이나되는 다리에서 떠러저서 유희국은 외인편쇄골(鎖骨)이 부러지며 전신에 타박상과 화상(火傷)을당하고 유창식은 외인편견갑골(肩胛骨)을 다치어 원고들은 여간큰것이 아니니 피고는 위자료 일만원을 내라는것이다

이부러지고 흉부와 둔부에 타박상과 화상을당하야 일개월이상 입원치료를 하엿스나 결국 불구자(不具者)가되여 정신상 육체상고통이 만흐니 피고는원고에게 전과한바와가티 위자료를 내라는것이다

그리고 한건은 경기도수원읍매산리(水原邑梅山里)포목상 김창현(金昌顯)이 수원군안룡면고색리(安龍面古索里) 박건욱(朴健裕)을 상대로 위자료 일만원을 청구하는것으로 청구리유는 원고의아들 규섭(圭燮)(六)이가사 월십륙일 오후두시에 피고의소유 화물자동차에 치여무참히도 즉사하야 가족들의 정신상고통



新綠어리운古宮 (오늘 慶會樓에서)

메-터制實施後의反響

不平不便만疊出

營業者、運轉手、乘客에

豫想外의非難으로當局도頭痛

경성시내는 멀거나 갓갑거나 팔십전균일로 바뀌어온든 자동차료금을 갑작이 고쳐서 경기도에서는 지난일일부터 「메-타」제도로하야 실시하게됨에따라 그것을 실시한지 불과 며칠이못되어 자동차를 리용하는 승객이나 자동차영업자나、자동차운전수나 모다가 불편하다 손해된다 수입이 주러젓다하야 각기 불편과불만의 소리를 질르고잇다 더욱이 빈자동차를 모라가면서도 손을태우지안는다는 비난까지도잇다 그래서 모처럼 당국자들의 리상에갓가운 제도라하야 연구해낸것이 당국자들의 예상과는 딴판으로 칭찬보다도 도로혀 비난이적지안타 이「메-터」제가 장차순조로히잘 실행되여가게 될것인가 혹은 다른 새제도로 밧구어지게 될것인가 그 전도는 자못 주목을 끌고잇는일이나 무슨제도이든지 새로 맨들어낼때에는 그에익숙하여지기까지는 불편과불만이 만흘법이지만 메-터제에관하여는 특별히 말성이만키에 이하 관계자의 말을소개하는바이다

二割가량收入激減

차라리區間制를

某自動車部主人談

「메-터」제도가 실시된 뒤로 아직 얼마가 여트니 이러타 저러타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종래 시내 팔십전균일제도시대보다 수입이 일할오분내지 이할가량 주러젓습니다 그러나 전차에는 외상이 만턴는데 이번의「메-터」제도를 실시한뒤로는 현금수입이 만코 외상은 훨신 적어젓습니다 서울복판에 영업장소를가진영업자는 대체로、적자보다 이익이 주러지게되엿습니다 시내에잇는 료리집가튼데에 래왕할때에 자동차를 리용하는손님이 만흔터인데 팔십전에서오십전으로 삼십전이나 나려스니 그영향이큽니다 그리고메-터로도 각금 긔게가 병이나서 곤난을당한일이 적지안습니다 우리생각가태서는 차라리 구간제도(區間制度)를실시하는것이 편의하지안흘가 생각됩니다

不便이만소

某乘客談

어느 자동차부에 가서 자동차가 잇는것을 보고 갈 장소를 예전의 시외어느곳으로-태여달라한즉 자동차부주인은 어쩐지 상을 찌프리고 그즉시로 달갑게 대답을하지 안습듸다 그리고 창경원에꼿구경을 갓다가 오는길에 빈차로 도라가는 자동차를 타려한즉 운전수는 거절합듸다 그리고 어떤 자동차부는 불러도 잘오지안는 일도 잇서요 이래서야 「메-터」제도를 실시한때문에 우리 자동차리용자는 도로혀 더불편하게되엿다고 할수밧게업지안켓습니까

잘될줄밋소

趙保安課長談

작년도 경성시내의 자동차리용자의 수효를 따저보건대 가

運轉手非行監視

業者의"스파이"暗躍

메-터制實施後새로운對策

「미터-」제로부터「메터-」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일반영업자들은 혹시 운전수들이 부수입(副收入)을 엇기위하여 어떤 아름답지못한 거조를 취하지나 안흘가? 하는 의심으로 소위 사설"스파이"들을 느려노하가지고 운전수들이 일하고잇는때마다 그-뒤를밟게한다고한다

즉「메터-」제도 실시후에일반 영업자들은 수입의 격증으로 말매아마 만족해하는반면에 운전수들은 로동력이갓득이나 늘은데다가 평소에푼푼이 들어오든 부수입이 아조업서젓기때문에 현재와가티고정된 박봉으로는 도저히생활을 유지해갈수업다해서 어찌하면 이까다로운「메터-」기계를 리용해가지고 부수입을 짜내일까?하는 계략을꾸리들하고 잇는때문이라한다。소위 그사설"스파이"들이란것은 영업자들의 근친、혹은 원친들이거나 그러치안흐면 일급제로 불려서 보수를 밧는 [illegible]과가티 꾸미어 차를몰고다니며

生活上에大打擊

某自動車運轉手談

「메-터」제도가 실시된 뒤로 우리 운전수들의 수입에는 타격이 만습니다 종래에는 팔십전 료금을 내게

副收入의全無로

차운거리 태왕개이 팔십이요 먹거리 태왕개은 이할이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메-터」제도를 실시하게될에 따라 그팔십전은 전자 팔십전료금때보다 훨신 협하게 리용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요지음도 중에서 손을 태우지 안는다는것은 꼿꼿경험이여서 밧부니까 자동차영업자가 운전수들에게 지체말고 빨리 도라와야만 놀론리탄는 손님에게 때문을 노치지안케되겟고 신용을 지키게되겟다고 주의를시킨 때문이라합니다 그러나이꼿구경철을 지내고나면 그런일은 업슬줄로압니다 그러고

자동차영업자의 리해관계를살펴보면 경성중앙에 잇는 영업자는 종래보다 일할 내지 이할가량 수입이 감해질것이요 저한쪽구석에잇는 영업자는 오히려 그수입이 더늘게될것입니다 이번 이제도를실시함에 따라 서울중앙에잇는 영업자는 종래에 자동차한대에 평균팔십전의 수입이든것이 이번에는 한대에 오십팔전평균수입으로 추러질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업에 안정을 엇게될터이니까 장차는 잘되어가리라고 밋습니다

"메터-"制의惠澤으로

큰수가난機械商

三三六臺에四萬二百卅圓

一臺에一百卄圓식

이번 「메터-」긔게를 부처자동차는 경성부내에 전부 삼백삼십육대로 한대에 일백이십원으로 산것이즉 그대금총액은사만삼백이십원으로 「메터-」긔게장사는 별안간에 큰리익을 보게 되엿다한다

저고 어떤거리에까지 가면서「메터-」기계를 감시하는것으로서 만약 그들의눈에 띄우기만하는때에는 운전수는 용서업시해고를 서켜고마는것이라한다

되때에 손님이 일원짜리를 내면 대부분은 그거시롱돈을 밧지안코 그냥팁으로 주엇습니다 그리고 도중에서 손님을 태워서 자동차부에도라가면 이할내지 삼할은 운전수에게 배당해 주엇습니다 그런데 이번「메터-」제도를 실시한뒤로는 그런 부수입이 전연 업서젓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은 더바쁘며 딱한일입니다

寫眞은 開幕된籠球聯盟戰入場式과緊張된競技光景

今日 本社後援 中等・俱樂部籠球聯盟戰

第二日 ◇午後四時부터 協實—培材、養正—徽文 新、普成—一高、高麗—延專

鍾路基督敎靑年會後庭서

入場料 一般十錢 學生五錢

婚姻잔체飮食먹고 七十名中毒騷動

그中兩名은死亡 十九名은瀕死狀態

价川과安州에또發生

【平壤支局電話】날세가더워짐을 따라 도다시음식물중독(中毒)사건이또루러되고잇다 평남개천군개천면중앙리(价川郡价川面中央里) 김광수(金光洙)(三十)는 지난오일결혼식을성대히거행하고 괴도야지고기등잔채음식을 그동리에 나누어주엇든바 이음식을먹고 동민이십구명이중독되야 라성화(羅成化)(..)차도영(車道永)(..)두명은 사망하고 남어지 스물일곱명중 다섯명도 자못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그리고 평남 안주군 동면 면서리(安州郡東面西里) 백태선(白泰善)(..)은 그의딸 희화(熙華)를 웃내로 시집보냇든데 신랑집에서 차린 잔채음식들을 바더다가 적고 동리사람에게 나누어주엇든바 동민 사십명이중독되야 그중열네명은 생명위독하야 지저도[illegible]수용중이라 하는데 안주경찰서에서는 원인을조사중이라한다

團體往來 (京城着)

▲六日着 [illegible]高普 四十名 ▲[illegible] ▲[illegible]川[illegible]高普校 一三六名 ▲[illegible] 一三〇名 ▲明星[illegible] ▲[illegible]校 一〇八名 ▲平北古平普校 一二四〇名 ▲三崇普校 一〇〇名 ▲平壤普校 七四名 ▲開城普校 二八〇名 ▲[illegible] 四一名 ▲長淵普校 七〇名 ▲[illegible]普校 五四名 ▲[illegible] 二 州女普校 六〇名 ▲明新普校 四〇名 ▲新山女普 一六〇名 ▲春天普校 一二〇名 ▲元山商業 三七名 ▲載寧普校 一五三名 ▲永興三一普校 五五名 ▲七日着 ▲西河普校 六〇名 ▲[illegible]普校 一五七名 ▲[illegible]普校 一八〇名 ▲馬山普校 一六〇名 ▲[illegible]普校 六三名 ▲元山中學 八二名 ▲[illegible]普校 一五四名

籠球界最高峯

聯盟戰遂開幕

劈頭에中東・協實・培材各勝

本社後援 第六回 籠球聯盟戰 ①

朝鮮籠球界의 最高峰인 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後援의 第六回中等校及 俱樂部籠球聯盟戰 第一日의 幕은 六日午後四時三十五分부터 鍾路中央基督敎靑年會館「코-트」에서 드듸어 열리엇다 今年度의 各競技를 目標로 이 聯盟戰에 參加한 [illegible]는 百四十餘名의 選手가入場한後 大會委員長 金圭冕氏의 開會辭가잇섯고 뒤니어 昨年度優勝팀인 中等校A級中東學校와 同B級靑年會學校及 俱樂部優勝팀인 普成專門等의 優勝盃返還이잇섯스며 出場選手一同을代表하야 普專[illegible]李文鎬君의 宣誓가

【第一次戰】中等校A級戰인 中東對靑[illegible]戰은 六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李惠澤、金[illegible]兩氏審判下에 開始되엿다 前半은 中東이 [illegible] 十二對十二의 同點으로 마치고 後半戰에드러가 中東팀의 [illegible]한 活躍으로 二十六對十七로 中東이 勝利

中東26(14・12／12・5)17靑[illegible]

反	前	後	【中東】	
1	0	2	鄭元[illegible]	F
2	5	8	李[illegible]寬	F
0	5	4	孫仁[illegible]	C
0	2	0	崔[illegible]	G
1	0	0	許[illegible]	G
0	0	0	金永[illegible]	G
4	12	14		

	【靑[illegible]】	前	後	反
F	鄭[illegible]	2	0	1
F	崔允[illegible]	0	0	0
F	李[illegible]	4	0	4
C	崔[illegible]	4	5	2
G	金俊泰	0	0	0
G	金萬壽	2	0	0
		12	5	7

【第二次戰】中等校B級戰인 協實對中央戰은 同日午後五時四十八分부터 林東洙、孫泰源兩氏審判下에 開始되엿는바 結局二十五對十六으로 協實勝

協實25(14・11／11・5)16中央

反	前	後	【協實】	
0	4	4	[illegible]洽	F
0	0	2	金學元	F
2	0	0	裵顯文	C
2	0	2	林用淳	G
0	0	3	咸益[illegible]	G
0	7	4	金慶福	G
4	11	14		

	【中央】	前	後	反
F	閔仁基	0	4	0
F	金[illegible]	0	1	0
F	李興九	0	0	0
F	[illegible]	0	2	1
C	白弘基	5	2	2
G	金泉瑚	0	0	2
G	白承龍	0	2	1
		5	11	6

【第三次戰】中等校B級戰인 培材對道商戰은 同日午後六時四十二分부터 李惠澤、孫禎俊兩氏審判아래 열리바 培材軍道商軍을 後半戰에드러가 壓倒的으로 優勢하야 四十對二十九로 培材勝

培材40(23・17／16・13)29道商

反	前	後	【培材】	
2	2	10	崔志[illegible]	F
0	1	1	徐永鍋	F
2	4	2	金[illegible]昊	F
1	2	6	河[illegible]谷	C
0	6	4	全龍德	G
3	2	0	成[illegible]	G
8	17	23		

	【道商】	前	後	反
F	李相勛	5	9	2
F	孫光善	4	0	1
C	柳永一	0	0	0
G	李敦永	0	0	2
G	韓哲洙	4	2	3
G	韓龍雲	0	5	2
		13	16	10

朝鮮蹴協主催의 蹴球大會

今日京運서開幕

朝鮮蹴球協會主催의 第二回全朝鮮蹴球選手權大會는 今七日午後四時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開幕할터인데 參加五團體中 世專은 棄權하고 朝鮮專門校球界의 雨雄인 延專、普專等을 비롯하야 鐵道、京醫專等이 出場케되엿다 그리고 入場式은 同日午後四時에 擧行될터이며 이 大會優勝팀은 來六月에 열리는 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에 出場케될터이라한다

▲準決勝…延專對鐵道(午後四時十五分)普專對京醫專(午後五時半)▲決勝戰은 九日午後一時부터擧行함

運動界集會

▲全朝鮮아마추어拳鬪聯盟及四新聞社運動記者團共同主催의 李圭[illegible]君送別會는 今七日午後六時半明月館에서 열리인데 會費는一圓五十錢(當日持參)

今日의運動

▲蹴球—朝鮮蹴協主催 第二回全朝鮮蹴球大會準決勝戰 延專對鐵道(午後四時十五分)普專對京醫專(午後五時半)京城運動場

基督靑年會音樂部

중앙기독청년회관 사회부에서는 오월○일부터 다음과가티「음악구락부」를 개최하엿다고한다
一、피아노科 [illegible]
一、바이올린科 [illegible]
一、聲樂科 [illegible]

잠자다가黃泉가는! 京南一帶에奇病
最近漢江通과梨泰院에서 兩名患者가怪死

【京南】 경성부민들에게 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한지 불과한달 도못되엇는데 경남일대(京南一帶)에는 이전에보지못하든 잠자다죽는 괴역이 창궐하야 인심을불안케하고잇다 부내리태원정(梨泰院町)륙십칠번지 윤시철 영업하는 차은룡(車銀龍)은 사일밤열시경 방에서 자다가 갑작이고민을 하면서 의사도불을 새어서 말한마디못하고 죽고마랏다는데 지난이십칠일에도 부내한강통(漢江通)륙번지에서 음식점영업하는 민봉식(閔奉植)이라사람이 역시잠을 자다가그냥 죽고마랏다한다 이로써 일반은 아모병인줄 사람들이 밤새자다가족음으로 그의병명조차 몰나 극도로 공포중에 싸혀잇다한다

開城에音樂競演

【開城】 이번 고려공론사(高麗公論社)주최로 제일회 전조선남녀신인음악경연대회(全鮮男女新人音樂競演大會)를 개최하리라는데 심판은 특히시게에권위잇는분을 초빙하야 채점법에의해 공평을 기하리라는바 뜻잇는분은 만히 참가하여 주기를 바란다한다
▲申込期日 五月二十八日(本社總務部)
▲時日 五月三十日 午後八時
▲場所 高麗靑年會講堂
▲音樂種目 피아노·바이오린·聲樂(女聲 男聲)合唱 管樂。童謠。

五年間에六倍增
東大門管內新築統計
景氣에浮動잘되는朝鮮人經濟

경기(景氣)의 호불호가 사회생활에 밋치는 영향은 참으로큰 것이며 호경기와 불경기가반영하야 비저내는 사회현상중에건축증가는 경기의「바로메-터-」의 중요한 요소의하나가되는것이다 이제 시내동대문서(東大門署)관내의 작년말 현재 과거오개년간의 건축출원건수(建築出願件數)를보건대 신축、증축、개축을 통하야 조선식출원가옥건수에잇서서 소화륙년에 불과일백팔건이든것이 소화십년에는 일약오백구십팔건으로 격증하엿스니약 륙배의 증가이며 일본식건축은 소화륙년, 칠년에비하야 구년, 십년은 오히려다소의 감소를보이고잇다 불경기의 소화륙년경과 호경기의 절정에서날뛰는소화십년에 조선사람과 일본내지사람들과의사이에 신축가옥수를 통하야 본이차의라는것은 그야말로·조선사람 상업이라는것이 경기의 파동(波動)에 번롱하는 바심함을 의미하는것으로 경제적고조의 빈약함을 반영하는것 이라고할수밧게업스며 참고로연도별통계를 다음(別表)와갓다

東大門署管內建築出願取扱表(自昭和六年至同十年)修理、模樣替除外

	新築 朝鮮式	新築 日本內地式	新築 콩크리-트筋鐵	增築 朝鮮式	增築 日本式	增築 콩크리-트筋鐵	改築 朝鮮式	改築 日本式	改築 콩크리-트筋鐵	計 朝鮮式	計 日本式	計 콩크리-트筋鐵
昭和六年	六〇	一二二	五	四九	一七	—	九	二	—	一〇八	一三一	五
昭和七年	一二四	一四二	九	一六	九	四	六	二	—	一四六	一五三	一三
昭和八年	一七〇	七八	一四	一〇	三	—	一二	一	—	一八二	八二	一四
昭和九年	三九〇	八六	一六	二七	五	—	六	—	—	四二三	九一	一六
昭和十年	五四八	八六	一七	四三	一四	一	七	二	—	五九八	一〇二	一八

四月中圖書閱覽者 二萬二千六百餘名

종로부도서관에서 사월한달동안에 열람한 총인원은 이만이천륙백열여섯명으로 매일 평균 칠백수십여명의 비례를 보이고 잇는데 그중리학과 의학서류열람자 삼천칠백열여섯명이 첫재요 그다음으로는 어학과 문학이천구백아홉명이 둘째로 모다 제일마호열람자를보이고잇다한다

★올림픽美談一齣
拳鬪代表 李圭煥君을爲해 同窓學友가分錢醵金三百餘圓

오는팔월 독일백림(獨逸伯林)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에 조선대표로 출전하야 권투조선의 의기를 세계에 유감업시 보혀줄 리규환(李圭煥)군을 위하야 그의모교 중동학교(中東學校)에서는 그의전도를 축복하고 그의의기를 도아주기위하야 오후 려시삼십분 그학교교정에서 직원과 생도전부가 모히여 성대한 송별회를 열러라고한다 그리고 작으나마 그의로자를 보태여주기위하야 직원과생도들은 빈약한주머니를 털러 삼백여원을 모와주엇다한다

法堂까지꾸며논 詐欺祈禱師警察에

【開城】 부내경정(府內京町)○백오십삼번지 리태진(李台珍)(一七)은 오년전부터 소위신(神)을접했다해가지고 자기집에다 법당을 꾸며노코 우매한부녀들을속이여 다대한 금품을사취하고왓는데 부내원정(府內元町)이백팔십이번지 박인수(朴寅秀)가 약한달전부터 정신에이상이생겨갓금 미친소리를 한다는 소문을 듯은 전기리태진은 독기롤수단으로 지난사월십오일 박씨집을차저가 내가법당에 일주일만 기도드리면 병자는당연코 낫게되리라고 장담하며 전기통수를받아 인의 기운을 빼다하고 경비하야 노아서 한때는 기지사경에까지이르게 맨들엇섯는바 이소문을탐지한 개성서에서는 그자를 즉시 체포하야 엄중취조중에잇다한다

京畿名所探勝 第二次로冠岳山
本社京南支局主催

【京南】 기후지신롱이 호흥에허 놓거리는 오월의 절고는하이킹으로서는올도업는적절한씨슨이다 이때에 본사경남지국(京南支局)주최의 경기명소탐승(京畿名所探勝)제일회 광주남한산성(廣州南漢山城)탐승은 당일아츰 비가나렷음에도 불고하고 대성황을이루엇거니와 오는십일 일요일에는 제이차로 관악산(冠岳山)탐승을 결정하엿다 관악산은 경기도오악(京畿五嶽)의 하나로서 기암괴석이 대자연의 신비경을이루워 속칭경기금강(京畿金剛)이라고 불르는 명산이다 한때는 화산(火山)으로 마조건너다보이는 경복궁(慶福宮)에 불재를닌다는 전설을 가진 신비의 명산이엇스니 그곳을찻는 젊은 하이커-의 마음은 얼마나뛸것인가? 또한 하로동안 준험한 산곡간을 허매며 대자연을 탐방하는것도 울적한 도시인들로서는 여간 상쾌할 일이 아닐것이다 정독하이커-들은 다음 규정을 따라 신속히 참가하기를바란다고。

參加規定
一、參加人員 男女二十名
一、會費 一圓(記念撮影、登山競技賞品、安養京城間歸路車費、其他全部包含)
一、食費 自擔
一、探勝地 戀主庵 戀主臺 望月寺 獅子庵 三幕寺 念佛庵 石水洞 等外七個庵寺刹
一、出發時日 五月十日(日曜日) 午前七時三十分
一、集合場所 漢江橋 電車終點
一、參加申請 出發時間까지 集合所에서 參加해도 可함(그러나 郵便으로 九日까지 申請通知함을 바람)
一、參加申請所 京城府新龍山梨泰院町 朝鮮日報社京南支局

基督敎紛糾問題 大討論會開催

시내 서강감리교회(西江監理敎會)엡윗청년회교양부(敎養部)에서는 현하조선기독교게분규에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바 다수참가하야 주기를 바란다한다
一、日時 五月十一日(月)午後八時半
一、場所 西江禮拜堂
一、問題 現下朝鮮基督敎界의紛糾를淸算치못하는責任이 指導級에잇느냐? 平信徒에게잇느냐?
一、演士 必히各側一人式(要住所氏名明記)
一、時間 一人十五分間豫定
一、申請 五月八日內 市內倉前町西江敎會內 엡윗靑年會敎養部

貿易額六千萬圓 上昇一路의仁川貿易

【仁川】 작년일년 인천항 무역액은 이억원을 돌파하엿다는데 그 축하식을 목전에 두고 인천항의무역액은 매월증가되고잇다 이에 사월중의무역에대한 인천세관조사에의하면 사월한달만도 이천오십만원을 돌파하엿다는데 작년동기에비하야 약오백오십만원이증가되엿다는데 수출입별로본다면 다음과갓다한다

仁川四月中貿易

輸出	六一六、三一九圓
輸入	二、九三四、八四二圓
移出	五、四九一、九二〇圓
移入	二、四四七、七八六圓
合計	一〇、五〇〇、八六七圓

脚戱弓術擲柶 三大會盛況
本報長湍支局主催

【長湍】 본보 장단(長湍)지국과 장단번영회(繁榮會) 공동주최인 전조선각희(脚戱)와 궁술(弓術) 척사(擲柶)대회는 예정과 가티 지난 삼일에 장단읍전에서 성대히 개최하얏는데 당일 각부의 입상자는 다음과 갓다 한다.

一、脚戱部 一等洪淳典 二等李瑛雨 三等金杵天 四等金順明 五等金鎭晃
二、弓術部 一等孫秉榮 二等申海玉 三等安興植 四等鄭天基 五等申海玉
三、擲柶部 一等朴順奉 二等黃謹泳 三等劉錫錢 四等李庚成 五等周學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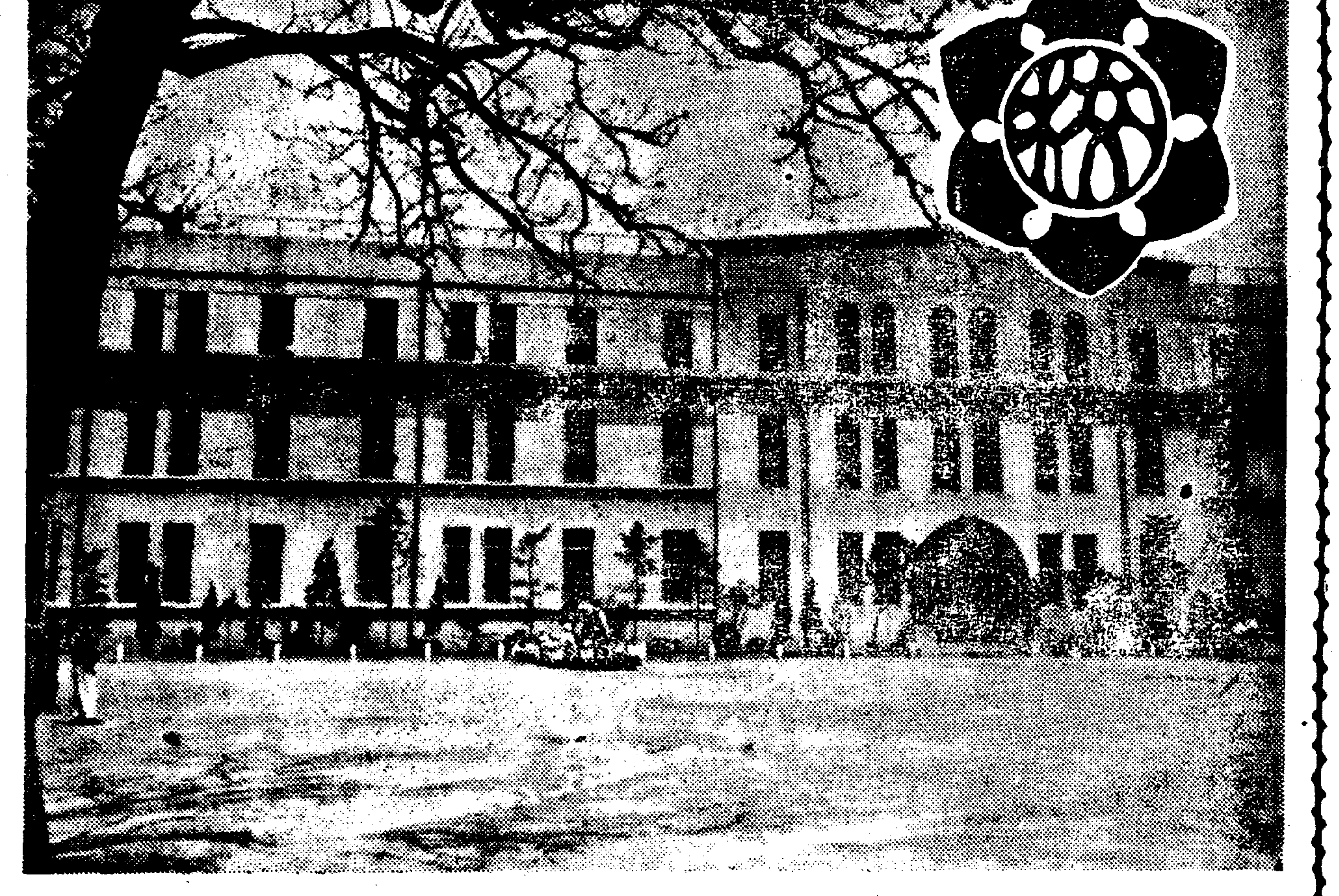
(사진은 전조선각희대회광경)

新堂里醜漢三年役

강간치상사건피고 부내신당정(新堂町)삼백사십번지의사호 최승계(崔承繼)에관한 복심공판은 륙일오전 경성복심법원에서 곽(郭)재판장주심、궁천(宮川)검사관여미에 열렷는데 검사는징역삼년을 구형하엿다 사건은 지난삼월이일 대낮에、피고가 신당정부근산벌판을처로지나가는 그동리황(黃)모의딸 순례(淳禮)(十三)를 산림속으로 끌고들어가서 폭행을하야 륙주일이상치료를요하는상처를입혓다는것인데 피고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삼년언도를 밧고 억울하다하야 복심법원에 불복공소하여온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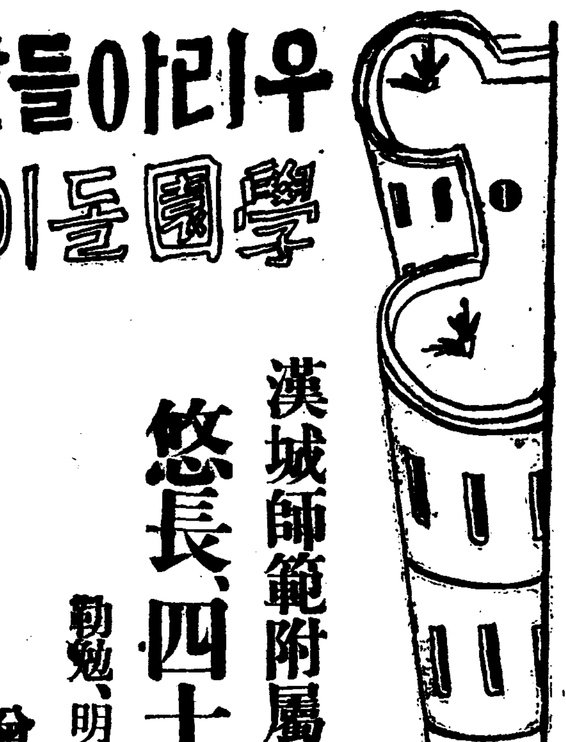
仁川의發展과 花柳界好景氣

【仁川】 군항의도지역과 건축의호경기로들어가는것은 희류계의경기뿐인 밧갓지안볼 소식이다 이에지난오월부회에 대한인천서조사에의하면 하로의유흥자만 일백사십구명에 쳐백사지사업금액신전에 달하는형편이다 이를작년동기에 비하면 와시배이상의증가를보이고잇는형상이라한다



우리아들딸이 學園돌이
漢城師範附屬普校로 悠長、四十三年歷史
勤勉、明朗은校洞校傳統的精神
增築中의三層大校舍

校洞公普篇



지금부터 우리시민들의 귀여운 아들딸이 글배우고 몸을 닥는 고마운 터전、시내 각보통학교를 차저가서보고 듯고 늣긴바를 그대로 적어나가려고 한다 내아들이 단이는 그학교 내딸이 글배우는 그선생님 그들어린이들이 뛰고 노는 그운동장 그들이 수신(修身)산술(算術)습자(習字)며 창가(唱歌)를 배우는 그교실등 내아들의 이학교 내딸의 저학교의 알뜰와 안팍은 그부모되는 우리시민들의 궁금할바일것이다

시내 경운정(慶雲町)번지로 따지면 실림번지、엇는것가 운현궁(雲峴宮)압헤 잇는 누구나 다 아는 교동공립보통학교(校洞公立普通學校)를 기자는 차저갓다 교문을 들어서자 열운연두빗제 내뿜는 웅장한 삼층철근「콩크리-트」의 선뜻한 회교본관이 봄볕양지에 빗나서 마음것 명랑하다 집중폭떠기에 높히놀려 가볍게 봄바람에 배불러 너웃거리는 조회로 맨든큰 잉어한머리도 서투른 풍속이건마는 푸른오월의 대공에 생장(生長)하는신선을노움 면저주고잇다 제법널은 뽀-얀 운동장에 어린생도들의 뛰노는 소리들이 어즈럽다 나날이 점차소리 자동차소리며 소요한 거리에흥해 머리가 식그럽든 괴자도 이어린이들의 떠들석함에는 도리혀 상쾌한 늣김을 바덧다 잡음이나마 그속에 들어잇는 소사나는생명! 명랑한기운 봄날의종달새 소리나붓지안는소리들이다「다-크블루」교복을 바르게 그목에 생하얀 운동복교의 라가 나와잇는 그복장의 회색과흰색 의대조가 우선 언뜻보고도 이것은 교동학교 생도란는것을 말해준다 더구나 그모자에서 빤작빤작빗나고잇는 은빗「바이오렛」의 휘장은 시내어느학교의 모표보담 유달리 아담해보인다 다른학교와함께 현재의 수업년한六년으로 된것이라고하다 터구나 대정구년 사월일일부터 고 명치사십사년 신임원임일부터 현재의교동공립보통학교로된것인데 대정구년 사월일일부터 다른학교와함께 현재의 수업년한 륙년으로 된것이라고한다

현재에 광우하는 아동수가 일천륙백사십구명 그중에 남자아동이 팔백오십팔명 녀생도가 칠백칠십일명이요 학급(學級)이 이십삼학급으로 명년에 하나가 더늘어서 이십사학급이 될것이나 교실이 부족하야 증축하고잇는 중이라 한다 이학교에서 일시에 교로 부족하야 중이라 한다 현재의 교사는 소화 팔년부터 예산에 편입하야 그뒤로 칠년동안에 완성된 현재의 교사이다

이학교는 지금으로부터 사십삼년전인 명치이십칠년에 판립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官立漢城師範學校附屬小學校)라는 일홈으로 창설된 것이라고 한다 그후 명치사십년에 공립보통학교로 되엿는데 ……○……

교정에 서서 교사를 올려다보는 기자에게 교장은 교사 증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엇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학교는 관립시절부터 그동안에 교사를 이전하기를 한번도 아니하고 그자리에서 증축하여온 것인데 이번의 삼층교사가 완성되면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훌륭한 교사가 되리라고 한다 (이하 약간 불명)

산 귀지를다가서 역시삼층교사를 증축하고잇는중인데 그동안에 아동을 가르칠 교실이업서서 후은강당을 또는 재봉실、가사실까지 교실로 사용하고잇는 형편이라고한다 특히 운현궁(雲峴宮)의 호의로 빌려주신 학교동북쪽에 잇는 묵은 개와집한채는 황송하게도 옛날 고종(高宗)께옵서 탄생하신곳인데 이속에서 금을 배우고잇는 아동이며 선생님들도 감격에넘처 한층더 배홈과 가르침에 기운을 엇는다고한다 수울다섯분의 선생님들의 열성에 넘치는 교편은 말할것도업거니와 현재의 재학하는 일천륙백여명의 아동들도 언제던지 교동학생은 공부 잘한다는 전통의정신을 저바리지안코 한결가치 글배우기에 게을리이 업다고 한다 특히 이를 아희들의 학부형도 그열성이 비상하야 교사를 증축할때 운동장을 넓힐때 만흔 기부를 즐겨내여 서다 동편으로부터 소사오르는아유지의 호의로 수천원짜리「피아노」까지 사들여오게되엿다고한다 가는데 특히 요사이는 학부형 그 선비가 날로 더 완성되여 때 가지 취미판을 마우성장되며 다 ...

그 선비가 날로 더 완성되여 유쾌한 화석국(?)에 마추어 기운차게하는「라디오체조」부터 교통학교아동들의 귀여운고 명랑한그날의 학창(學窓)의 차례가시작된다 맑은마음 굿센몸을 닥가내는 이두가지 보배、힘과 마음을 모아서 의조케 함께배우는 어린이들 씩씩하고 귀여운 교동학교아동들은 기리기리 복바들지이다

(사진은 교사와휘장)

春季種痘日程 東大門署管內

시내동대문서관내 춘기종두시행일할표는 다음과갓다고한다
▲五月十一日 梨泉場에서(安岩町、鍾岩町、敦岩町、龍頭町、新設町)
▲同十二日午前大學豫科午後泰昌織物會社(踏十里町、淸凉里町、典農町、回基町、徽慶町、里門町)
▲十三日敦岩町普校(敦岩町、城北町)
▲十四日往十里普通學校(上往十里町、下往十里町、金湖町、玉水町)
▲同十五日新堂里防水布製造所(新堂町)
▲同十六日纛島普校(纛島町)
▲同十八日元香谷里區長林永根宅(香谷町、沙斤町、馬場町)

藥先送服後藥代金支拂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 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藥効가 廣告와 달르면 代金을 送金치 마시요

●代金全額後拂販賣를하니 藥效의最大確實最極上은不問可知

第一、第一、참第一、정말第一조흔 補藥인故로藥先送하고代金後拂約束으로 販賣하고잇습니다 그런즉이藥의效力이얼마나 確實한지는諸氏도不問可知일것이올시다
●性慾이減退한사람
●手足과下焦가 恒常濕冷한사람
●消化不良한사람
●恒常氣力이업고
●活氣가적은사람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症狀이오니 一日速히 第一完全하고第一 조흔 補藥 百補丸을 服用하시와 更少年이되시요

代金後拂(規定及注意)
百補丸의 大特効를天下사람에게急速히알게하기爲하야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합니다 만은 試服後代金을 잘支拂하여주실人士는 官吏이든지 私民이든지 富者이든지 紳士이든지 無産者이든지 商工人이든지 알지못하겟습니다 그러타고 누구에게던지 다後拂條件으로 送藥할수도업는形便인故로 全朝鮮道知事 全朝鮮郡守 全朝鮮面長 全朝鮮官公立學校長 全朝鮮金融組合理事 京城市內面町總代 全朝鮮百石以上秋收하는 地主에게만 限하야 後拂注文에應하고 그他諸氏에게는 罪悚하고未安하오나 商事上不得已한 事情이오니 失禮이오나 普通注文으로 하옵나이다 後拂注文도 普通注文도 藥이不合意하면 返送할것이고 普通注文도 代金을 先金又는 引換代金으로 藥을受取하엿으나 萬一이라도 或藥이貴意에不合하면 返藥하시고 全額返金請求를하시게 規定이되엿아오니 先金이나 代金引換이나 服藥者의利害得失은 一般가즙니다

後拂注文法
注文時에 먼저 後拂注文이라쓰고 藥代金十圓은 試服後 支拂할터이니 百補丸特製一劑보내시요 送費七十錢은 郵票로나 振替나 爲替로 先送하여 주시요 注文書에는 貴氏名엽헤 官吏면 官名을 富者면 地主라고 百石以上秋收하는地主면 地稅證明書를 同封하여주시요 注文書에는必히 印章을찍어주시요

普通注文法
平和堂振替五番에送金하시거나 爲替로나 十圓을보내주시던지 藥價로 百補丸特製一劑代金引換付送하오하시요

普通注文人께特典
普通注文人께는 送料도 本社負擔하고 苦心發見한 秘藥 三劑以上共同注文 百補丸一劑無料添付

信用販賣高 朝鮮第一

京城堅志町(五·七)(前中央日報社跡)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振替京城五番·電光三番

▲百補丸을注文할때 朝鮮日報에서본것을記入하시요▲

(壹萬圓限一割式)

代金全額後拂
不老長壽、强精回春

●百補丸은 東西洋補藥中最極上 第一完全 第一조흔 絶對的上效力신기합니다

氣力이 活潑하여지고 早○가 完全히낫고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재증이 업서지고 胃氣不足이나 胃水不足이나하는 생각은 夢中에도 하지안이하게되며 補全身 百補하야 生理的으로 精神的으로 完全하고 更少年이되고 不老長壽케되니 이에서 더조흔 補藥이 어데잇습니가 더욱이 當分間 藥先送하고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하오니 이藥의 效力을 疑心할餘地가 秋毫만치도 업스실것입니다 只今곳注文하서요

人生에急大問題
●나무가 마르려고할때에 肥料와 물을 주지아니하면 그나무가 엇더케될니까
●사람이 性慾이술고 氣力이업고 勇氣가 나지아니하는때에 조흔 補藥을 아니쓰면 마르려는 나무에 물아니준것가티 悲慘하게 됩니다

百補丸의 藥效는左와如히 참 굉장합니다

一、百補丸을 服用하면 [illegible]
二、精力이 [illegible]
三、飮食을 自然히 만히 잡수시게되며 [illegible]
四、一週日만 服用하면 [illegible]
五、遠山[illegible] 百補丸을 服用하[illegible]
六、[illegible]
七、[illegible]
八、百補丸은 [illegible]
九、胃氣가大[illegible]
十、血色이 조와지며 [illegible]
十一、힘이생깁니다 [illegible]
十二、사람이 [illegible]
十三、[illegible]
十四、[illegible]
●百補丸은 [illegible] 代金特價一劑十圓·服用二十日

果然工業의都市

大阪서各工場觀察後奈良으로

產業視察團 咸尙勳

오늘(六日) 五月一日 아침 武田長兵衛商店에서 일부러 보내준 李秉義氏의 案內로 同商店新築部工場을 觀察하기로 하엿습니다. 먼저 同商店 重役諸氏이오 技術長인 藥學博士 三宅秀氏의 藥品製造에 對한 說明이 잇고 다음 同技師 櫻井氏의 工場案內가 잇섯는데 三宅博士의 말에 依하면 武田長兵衛商店은 歐洲大戰中 歐洲藥品이 日本에 輸入되지 못한 機會를 틈타 成長하야 今日의 大를 이루엇다는데 同工場의 面積은 三萬坪 從業員 一千八百人 그中 事務員 百三十人이라 하며 [illegible] 얼마나 規模가 큰것을 알수 잇습니다.

◇

工場內部를 觀察함에 잇서서 第一 注意를 끄는것은 場內의 淸潔한것이외다. 製藥을 하는 곳이라 淸潔하여야 할것은 말할것도 업지만 女職工들까지 淸潔한 옷을 입고잇는것은 퍽 愉快한것이엇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八時間 勞働制를 쓰고잇다는것을 보면 퍽 勞働者待遇에도 留意하는것이외다.

◇

工場에서는 注射藥을 瓶에너코 봉하는 過程과 그곳에다 라벨을 붓치는 過程과 丸藥을 고르고 그藥을 깨끗이 만드는 過程을 보앗는데 [illegible] 퍽 洗練하게 일을 합니다. 아세피린 만드는것과 [illegible] 大規模로 機械를 使用하는데 朝鮮서 [illegible] 이가리 大規模로 하지못하는 것도 原因의 하나가 되엿는 [illegible] 大量으로 製造해도 何物 故障이 업지안흘가 생각됩니다.

[illegible] 그저 從來의 方式을 固守하는 [illegible] 業에 防備할 方法을 硏究한다면 商品으로서 [illegible]

◇

[illegible] 化學的 [illegible] 다는 [illegible] 千萬이나 [illegible] 에는 [illegible] 그 工場이 [illegible]

◇

今後는 大阪 [illegible] 石炭石을 [illegible] 硏究하야 [illegible]

◇

大阪서는 [illegible] 大量을 [illegible] 午後五時 東京로 古都 奈良에 왓습니다. (五月一日記)

工業作物奬勵로 食糧栽培田地不足

農政上一考할點일듯

最近 朝鮮內에서 工業原料에 供할 作物의 改良增殖이 顯著하야 棉花 그他 工業用 原料作物의 栽培奬勵를 行하고잇슴에 不拘하고 用地의 開墾이 이에 伴치 안허 田畑의 不足을 生하야 一時的 採算으로 食糧田作을 放棄하고 他作物에 옴마가는 傾向이잇다. 卽 [illegible] 그他의 作物은 目下의 市價로하면 栽培採算等 有利치 안흠으로 稻를 비롯하야 그他 有利한 作物로 옴마가는 結果 食糧用栽培地의 不足을 招來하고잇다. 就中 南朝鮮 二、三道에서는 이傾向이 强하야 農業採算本位의 指導奬勵를 行하는 傾向이 濃厚하다. 農業의 市場生産化는 作物價格이 好轉을 維持하다면 問題가업스나 一朝 反動을 考慮하면 [illegible] 自給自足을 基調로하는 農本政策의 犯過이다. 總督府農林局內에서도 이傾向에 鑑하야 田作奬勵의 衝動을 [illegible] 되고잇는바 이 現實의 採算本位의 作物指導奬勵는 [illegible] 朝鮮의 農政上一考를 要할 [illegible]

產組機能擴充圖謀

[illegible]

產業

高地帶農業은 適地에施業方針

來年度부터十個年間繼續實施

農林局에서準備進行

高地帶農業振興策은 今年度부터 各道에서 [illegible] 冷害對策, 高地帶農業改善의 施設을 보고 十三年度부터 國費 豫算으로 本格的事業의 遂行을 보기로 되엇는데 農林局에서는 同計劃의 重要性에 鑑하야 撥서부터 高地帶對策의 基礎的調査와 準備工作을 進行하고잇다 同計劃은

一、昭和十二年度부터 十個年의 [illegible]

一、施業地區는 西北朝鮮 六道에 亘하야 이를 地勢關係로 甲、乙二區로 區別하야 北朝鮮開拓地區를 甲、其他를 乙로함

等의 目標下에 施業案을 講究하고잇슴으로 十二年度 豫算編成期까지에 十二分의 檢討를 遂하야 從前의 劃一施設을 避하고 適地施業을 進行할 豫定이다

淸津府加工生產額

【淸津】淸津府調查에依하면 昭和十年度中 府內加工工業生產額이 一千三百十四萬七千圓으로 前年度에 比하면 七百二十五萬六千圓이 增加되얏는바 重要한 生產品은 鰮油、搾粕、硬化油、大豆油等이라고한다

金組聯事業課 業務를擴充

販賣方面에積極進出

今春 金組聯合會에서는 總督府의 方針에 依하야 事業課의 業務를 擴充하야 그로하여금 產業組合의 中央部役割을 다하기로 準備進行中이든바 今般에 從來事業部로서 等閑視하고잇든 販賣方面의 事業을 積極的으로 勵行하고저 計劃中이라는데 그大體內容은 다음과갓다

主로 組合員이 生產하는 特產物 卽 織物 紙類 細工品、其他製品의 規格을 統一하여 그의 配給圓滑을 圖할 計劃이라고한다

產繭萬石目標

淸道郡서 督奬勵

【淸道】農事改良에 積極奬勵의 實을 擧하고잇는 郡農會에서는 一方 養蠶部門에도 絶對努力을 加하야 七千은算하는 養蠶家戶에 蠶室、簇、蠶戶의 改良을圖하며 郡內 九個面桑田 約五百町步에 客年產繭 八千五百石의 出廻를 보고잇다 數年前에 이미 產繭一萬石期成會가 組織되야 每年事業報告와 實施計畫을 發表하야왓스며 今年에도 去三日 期成會總會를 開催하야 昭和十二年에는 꼭 產繭一萬石을 產出케할案과 決意를 表明하얏다한다

慶南서棉增產

慶南道에서는 棉花의 增產奬勵에 一大拍車를 加하야 道平均段當 收量百二十六斤을 今年

全南海苔生產 稀有의大豊

比前年二倍를突破

【光州】今年全南道內의 海苔는 大豊作이라함은 既報하얏거니와 今年海苔養殖全面積은 千三百九十一萬坪으로前年보다 養殖面積이不過二百五十萬坪이 더만타는바 第六回潮까지의것이 六百十萬束에 價額三百二十五萬圓에達하야 昨年三百三十五萬二千束에 百九十四萬圓에 比하야 二倍以上이 激增하얏는데 今後로도海苔는 아즉도 十餘日이잇다한다

度에는 그의 二割을 增加시켜 百五十斤目標로 各種施設을 擴充하야 段當收量을 增進시키고 저 從來로 道農會主催下에 開催되든 棉作品評會의 會則一部를 改訂하고 道內一圓을 左記三區로 分割하야 審査를 施行하는 外에 今年度부터는 새로 道費補助로서 二段步以上의 耕作者들의 多收穫品評會를 各郡農會主催下에 開催하야 棉作增產에 本格的奬勵를 行하기로되엿다

第一區 宜寧、咸安、昌原、固城、泗川、南海、山淸

第二區 晉州、昌寧、密陽、蔚山、統營、陜川

第三區 梁山、東萊、金海、河東、咸陽、居昌

豊川果樹用品 共同購入增加

【豊川】黃海道豊川果樹組合에서는 例年과如히 果樹消毒藥品과 果樹關用具의 共同購入을 開始하엿는데 今年度共同購入額은約

春蠶의掃立豫想

六十七萬三千六百二十三枚

桑樹도繁茂大體良好

昭和十一年春蠶掃立豫想에對한 南朝鮮蠶絲會調查에依하면 南朝鮮地方은 五月中旬부터 下旬에亘하야 中部以北에서는 五月中旬부터 六月中旬에亘하여 掃立될 모양인데 掃立豫想枚數는 六十七萬三千六百二十三枚로 前年의實績六十二萬八千六百廿五枚에 比하면 四萬五千八枚 卽 七分二厘의 增加를 豫想케되며 其中 白繭種九割八分 黃繭種二分이며 桑樹繁茂의 狀況은 大概良好할 모양이고 氣候는 平年에 比하여 大體五日乃至十日늦즈며 또 金融狀況은 大槪良好하다 이제 各道別詳細를 表示하면 別表와 갓다

	十一年	增減枚數	同上比率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產◇業◇短◇信

▲木浦 木浦籾摺業同志會에서는 去五月三日 木浦米穀取引所樓上에서 第七回定期總會를 開催하엿섯다

▲新市 新市金融組合에서는 지난二十七日午後二時에 第一回定時總會를 開催하엿섯다 하며 [illegible] 解決되고잇다

■小生이 時計店을 經營하는바 時計修繕及 크롬鍍金等에 鍍金을하고저하오니 簡易하게 鍍金하는 方法을 詳細히 說明한 冊子販賣店을 下教하여주옵소서 (永州正時堂)

[答] 鍍金法參考書 東京市神田區神保町一 誠美堂發賣 佐久間春泰著 「實用電氣鍍金法」一圓十錢 西田順一著 「電氣鍍金術」七〇錢

木材消費激增 輸入國으로轉換?

木材資源은豊富한데도이矛盾

農林局에서根本的對策을講究

朝鮮은 木材資源이 豊富하야 輸移出을 繼續하고잇는바 最近朝鮮內의 木材消費의 飛躍的增大로因하야 木材의 大輸入國으로化하려한다 卽 總督府林政課에서 調査한데 依하면 朝鮮內의 木材消費는 過去三十年間에잇서 明治三十八年부터 大正四年까지 十年間 需要高는 二千三百七十萬尺締 大正四年부터 大正十四年까지 十年間은 二千九百二十四萬尺締로 그增加率은 二割三分가량이든것이 大正十四年以來十年間은 實로八割八分 五千四百九十五萬 尺締로 需要가 膨脹되고 昭和九年十年과 如히 一年間에 六百九十萬尺締 乃至七百萬尺締에 達한다 現在朝鮮內木材의 生產은 官業民間合하야 六百萬尺締前後에不過하야 인제一兩年이되지안허서 朝鮮은木材輸移入國으로 轉向하지안흘수 업다한다 이러한狀勢에잇서서 農林局에서도 木材의 自給的見地에서 그增產에 關하야 今秋產業調査會에 提案하야 根本的對策을 講究할 豫定이다

四月中移出入貿易

前年同期에比하야激增

四月中 朝鮮의 對日本內地貿易은 總額一億四百四十四萬五千圓으로 前年同期八千二百九十四萬四千圓에 比하면 二千百十萬圓의 增加인데 그中移出은 四千七百六十七萬三千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一千二百五十二萬六千圓 增加이오 移入은 五千六百三十七萬二千圓으로 前年同期보다 八百六十九萬七千圓의 增加를 보이어 前年同期에比하면 三百九十五萬三千圓의 減少를 보이엇다 이를 一月以降累計로 보면 總額에잇서 三億七千三百五十一萬二千圓으로 比前年同時四千三十二萬一千圓增加인데 移出은 一億八千九百十萬五千圓으로 比前年 參入은 一億九千二百四十四萬八千圓으로 三千百二十五萬八千圓增으로 어에잇서서는 前年에 잇서서는 一千百九萬三千圓의 出超이든것이 今年에는 一千百三十三萬三千圓의 入超를 示하고잇다

特別議會提出 經濟關係法案 【九】

重要肥料業統制法案

日本의 農業이 近年 漸次로 集約的農耕法에 依하게됨을 따라 肥料의 必要는 더욱 크게되엇다 特히 農業의 集約化에 伴하야 收穫量의 維持 或은 增加를 圖하야서는 金肥 卽 販賣肥料의 使用이 더욱 必要하게되엇다 現在 最近의 金肥使用量은 一個年 二億二千萬圓의 巨額에 達하야 農業經營費中 肥料代는 二割 乃至 二割五分으로 農業經營支出의 首位를 占하고잇는 現狀으로 보아도 農村經濟에 肥料가 如何히 重大한 役割을 가지엇는가를 알수잇슬것이다 따라 低廉한 肥料의 供給은 現下 農村窮乏을 打開함에 特히 要求되게 되엇다 近年에 이르러 販賣肥料의 情勢를 左右하는것은 硫安石灰窒素等 過燐酸石灰等의 化學肥料이다 此等의 化學肥料의 需給을 圓滑히하고 價格의 公正을 圖함에 依하야 全販賣肥料界의 大勢를 左右하는 程度가 되엇다 一般肥料의 價格을 公正히 保持할수 잇슬것이다.

이를 爲하야서는 肥料供給의 根幹인 肥料製造業의 改善發達을 圖하야 그經營을 安定케하는同時에 販賣價格을 公正케함이 緊要하다 그런데 肥料工業은 一朝有事之際에는 重要火藥原料의 生產에 轉換할使命을가질뿐만아니라 最新化學理論으로應用한것으로 그 盛衰는 곳 化學工業全般에 影響을 及하는바 큰關係上 一面經濟的 國防的見地에서 肥料製造業의 助長을하지 안호면 안되게되어잇다 如斯한 情勢下에 肥料法案의 立案이要求되어 昭和九年度以來 商工、農林省은 그立案에 着手하얏는데 生產者와 消費者의 立場에 서 兩省當局間에는 意見의 衝突이잇서 折衝을 거듭한끄테 一般以上 議會에 提出을 보게되엇스나 第六十七議會에 提出되엇다

肥料의 需給圓滑과 肥料價格의 低廉을 目標로

一、肥料製造業을 許可制로하고 또 生產能力이 不良한 工場의 强制改善 又는 廢止의命令을 規定하고

二、肥料取扱業者의 實權 買占 그他 不當한 價格의 引上에 依하야 圓滑한 供給과公正한 價格의 維持를 妨害하는境遇에는 統制命令을 發할수잇게하고

三、肥料製造業者에게 組合을 設立시키어 製造數量이나 價格에 自主的統制를 行케하고

四、肥料의 輸出入을 制限하고 또 公益上 必要한 境遇에는 組合에對하야 强制輸入을 命할수잇게하고

五、內閣에 肥料統制委員會를 設置하야 本法施行上 必要한 事項을 審議케하엿다

이러한 骨子를가진 原案은 第六十七議會에서 審議未了로 葬되엇다 이에는 肥料商側의 反對運動도잇섯스나 法案의 提出이 期終末에 갓가운후에 町田商相、山崎前農相이 모다 熱誠이缺하야政府側이 法案通過에 對하야 조금도 熱意가업는것이 議院의 本案에 關한 審議를 止케한것이라고 볼것으로 岡田前內閣은 肥料法案에 關한 當初부터 法案通過의 誠意가 업섯다 그議會提出은 單只 農村側에의 제스추어에 不過하다는 非難을 甘受치안흘것이다

×

第六十七議會에서 肥料法案이 審議未了되도되자 政府當局은 昨夏 硫安配給組合、石炭窒素共販組合、過燐酸工業組合의 生產者側 及 全購聯、農會의 消費者側 東京商工會議所에對하야 「肥料業統制에關한方策」에對하야 諮問答申을 求하얏다 廣田內閣이 되어 島田農相은 小川商相과 折衝하야 生產者 並 消費者側의 意向을 參酌하야 該案의 再檢討를 行한結果 이에 肥料法案은 다시 特別議會에 提出하기로 되엇는데 前回의 審議未了에 鑑하야 今回의 法案에는 重大한 修正을 試하얏다 修正法案은 아직 發表를 보지못하야 그內容을 詳細히 알수업스나 槪要는 如左하다고 傳한다

修正法案의內容

一、法案의 名稱을 『重要肥料業統制法案』이라고 곳치고 統制가 全肥料에 及하지안코 硫安 過燐酸石灰窒素 그他의 重要肥料製造業으로限할것을明白히 하얏다

一、肥料製造業의許可制를 廢止하얏다 原案의 根本的規定을 削除하얏는바 이는 消費者인農民團體의 希望에依한것이다

一、肥料取扱業者의 賣惜、買占等에對한 主務大臣의 命令權을 削除하고 業務取締令에 依하야 取締키로하엿다

一、肥料製造業等의 合理化를圖하야 肥料價格의 低下를圖키爲하야 肥料業統制組合에서 加盟社의 不良老朽工場을 整理하기로되어 잇섯는데 이項을 削除하얏다

一、公益上 必要하다고 認한 境遇 主務大臣은 組合에 對하야 肥料의 强制輸入을 命할수 잇는 權限을 削除하얏다

右에 본바와가티 修正된 重要肥料業統制法案에 잇서서는 原案의 主要部分에 修正을 行한結果 明白히 統制의 後退라 할것이며 資本家의 主張을 多分히 採入한 生產者의 擁護에 偏重되엇다 이리하야 이修正案에 남어잇는 消費者擁護의 點은 肥料製造業者에게 各種肥料別의 組合을 設케하고 業者를此組合에 强制加入식힌다 그리고 肥料製造業者의 決定, 組合員에對한配當, 販賣價格을 決定케하고 이를 政府에 屆出식힌다 其屆出의 結果에 對하야 不當하다고 認하는 때는 政府는(一個月以內에) 그變更을 命할수잇다 는 微弱한 統制에 不過하다

消費者의 擁護 卽 肥料市價의 抑制에는政府는 法案의 形式보다도 그運用如何에 依하야 效力을 發揮할수잇는것이라 한다 그러나 主務省이 商工、農林兩省에 亘하야잇슴으로 兩省의 意見對立으로 法의運用上 澁滯를生할 念慮가잇다 右의 修正한 統制가 果然 實效를 擧할수잇슬런지 어떨런지 이點이 甚히 疑問되는바이다 政府로서는 前番審議未了로 埋葬된 面目도잇고 또 肥料製造業者—例하면 配給組合—의 利權을 抑制할何等法的根據를 갓지못한 現狀으로 限令 今番의것이 脫骨된 案이라는 非難을 받을지라도 議會通過를 第一主義下에 이러한 妥協的修正을 斷行하야 그欠陷의 補充을 行政上의 運用에 依하야 補完하려는 意圖일것이다

그러나 窮乏의 深淵에서 헤매이는 農村에 對하야서는 統制의 强化를 唱하는 廣田內閣의 農村政策으로 承服할수 업슬것이다

特產市勢

【本報支局特電】

▲江華 (四日)

◇疋繩席	一匹	二十七碼
天印		五、六〇
地印		五、四〇
人印		五、二〇
◇江華人絹	一匹	二十七碼
天印		四、四〇
地印		四、二〇
人印		四、〇〇
◇蘭地	一枚幅二尺長四尺五寸	
天印		〇、六〇
地印		〇、五〇
人印		〇、四〇
◇苧麻布	一匹	二十七碼
天印	百番手	六、二〇
地印	同	六、〇〇
人印	同	五、八〇
天印	八十番手	五、四〇
地印	同	五、二〇
人印	同	五、〇〇
天印	六十番手	四、八〇
地印	同	四、六〇
人印	同	四、四〇
◇花紋席	一枚幅三尺長六尺	
天印		三、九〇
地印		三、三〇
人印		二、五〇
◇ 苁	一枚	
肥料用		〇、二二七

◇鑛業權設定·移動

◇鑛業代理人屆

(鑛區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illegible]

黃昏

韓雪野 作 安夕影 畫 【78】

오해(二)

경재는 술이 좀시 취해서 정신이 흐—틀어가고 다리가 허전그렷다.

그러나 불후, 헤징이와 갈리자 마음은 잇서서 살가러 다라낫다.

[illegible]

「누구요?」

「이방에 잇는이, 어디 갓슴니까?」

「회사로 간데나봅되다」

「회사요?」

경재는 의아한 생각을 하며 시계를 보앗다. 아홉시반이다.

「밤에 갈일 업는데……」

「누가 알우」

경재는 그저께밤, 집으로 올아올때에 오늘밤에 또온다고한 말을 생각하며 재처 물엇다—

「나가며, 암말도 업서요?」

「회사로 간다구, 그리드라지안소」

하고 로파는 혼자ㅅ말로 무엇을 종알 종알한다.

경재는 그의방에 들어가서 기다려볼가 하엿스나 공연히 조급해나서 돌아나왓다.

대체 무슨 때문일가?……하며 허전허전 뜬발을 옴기다가 문득 생각이나서, 길가 가게의 간판을 처다보며 한참 급하게 걸어갓다—한열아문집 지나서 야 그는 전화 잇는 가게를 차잣다.

그러나 전화를 걸어보아도 회사에서는 아무 응대도 업다.

「암만 불러도 나오지 안슴니다」

하는 전화교환수의 말을 듯고, 그는 밧개나와서 이윽히 주저하다가 다시 회사쪽으로 걸어갓다. 그까지 가볼 작정이엇다.

걸어가는사이에 문득 선뜻한 생각이 떠왓다—술이 취하면 눈조리에 울리한 주홍빛이 잡히는 사장의 붉은얼굴과, 그미혜 지질러서 더걸듯이 팔닥그리는 려순의모양이, 마치 무슨 환영(幻影)과가티 눈에 성울섬을 한다.

그의발은 별안간 집싸게 움겨젓다. 그럴수록 가슴은 떨놉게 뛰고, 천동흠이 저어서 질이 귀찬해질수록 환영은 더분

「려순씨!」

「……」

「무슨일이에요?」

그래도 려순은 잠자코 잇다.

「얘길 하서요」

「아무일두 업서요」

「일이 잇서서 갓다면서요?」

「급하게 좀 잇서서 갓다가 오는길이에요」

「급하게 잇섯서요?」

경재는 더욱 의아한생각이 낫다. 나제도 일이업서서 놀고잇는때가 만흔데, 밤에 무슨 서역일까?

「얼른 가요, 네」

두사람은 잠간 침묵에 잠긴채 걸어왓다.

「선생님두 술, 잡수섯군요」

「……」

「술, 잡숫지 마서요」

그래도 경재는 암말도 하지안는다.

려순은 한걸음 뒤떠러저서 그놀치면으로 걸어오며, 경재가보지안케, 머리도 쓰다듬어올리고 옷도 바로잡아 입는다.

일부러 그것을 보지안는체하면서도, 술흠 술흠 려순의 동정을 살피고 잇든 경재는, 물현듯 무어진모르게 불순한냄새를 마튼것가튼 생각이 나며대뜸 가슴이 뭉클해젓다.

그는 그만 더참을수업는듯이 딱 돌아서 찌르는듯이 려순을 처다 본다.

멀히 미치왓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세요?」

그런 소리를 들으며 그는 번뜻 머리를 들엇다. 저편 길가로부터 한그림자가 급히 걸어온다.

「아, 려순씨……」

「어디로 가서요?」

려순은 경재인줄을 알자, 퍽 반가운듯이 재바르게 뛰어온다.

「어디 갓다 오서요?」

「아이 무서워……」

려순은 몸을 움찌 떨며 가슴에나 안길듯이 바작 닥어서며

「얼른 가요」

하고 가기를 재촉한다.

「회사에 갓다 오시우?」

「네, 아니……가서요, 얼른……」

「무슨 일이에요? 밤에……」

하며 경재는 그의얼굴을 유심히 처다본다. 뭇시 상기한 얼굴이며, 허튼러진 머리칼이며, 구겨진 옷모양이 왼은 몸비체 희미하게 보인다.

순간, 려순은 반가운 생각도 사라저버린듯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업다.